

3/19/17

설교 제목: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욥기 19:1-29

- (욥 19: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 (욥 19:2)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 (욥 19:3)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 (욥 19:4)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 (욥 19:5)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절관주** 시 35:26
- (욥 19:6)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절관주** 욥 16:11
- (욥 19:7)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 (욥 19: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절관주** 욥 30:26
- (욥 19:9)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절관주** 욥 29:20
- (욥 19:10)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절관주** 욥 12:14
- (욥 19: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 **절관주** 욥 13:24
- (욥 19:12)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돌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절관주** 욥 16:13
- (욥 19:13)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 (욥 19:14)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 (욥 19:15)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절관주** 창 14:14
- (욥 19: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 (욥 19:17)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 (욥 19:18)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 (욥 19:19)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 (욥 19:20)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절관주** 욥 16:8, 욥 33:21
- (욥 19: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절관주** 욥 6:14, 룻 1:21
- (욥 19: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 (욥 19: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절관주** 사 30:8
- (욥 19:24)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 (욥 19: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 (욥 19:26)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 (욥 19: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 (욥 19:28)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 (욥 19:29)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의 세 친구들, 엘리사밧, 빌닷, 소발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욥에게 충고와 비판을 합니다.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째 돌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은 친구 빌닷의 두 번째 공박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전장에서 빌닷은 아주 과격하게 욥을 공박했습니다.

빌닷은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 학문에 기반을 둔 전통 학문에 능통한 전통주의자였기 때문에 인과응보론, 추수의 법칙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신다는 논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욥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빌닷은 욥을 첫 번째보다 더 거세게 몰아 부칩니다.

그래도 첫 번째 공박에서는 욥의 회복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두 번째 공박에서는 회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욥을 악인으로 기정 사실화시켜 몰아 부칩니다.

빌닷의 논점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므로 욥이 재앙을 받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운명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악인은 단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한 일체의 기억과 흔적, 또 후손마저도 단절되어 완전 멸종되는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범죄한 욥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덕적으로 균형잡힌 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빌닷의 이같은 공박에 대해 욥은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욥 19:2)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 19:3)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열 번'은 '계속' '반복해서' 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욥은 빌닷이 공박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빌닷은 18 장에서 다음과 같이 욥을 공박했습니다.

(욥 18:5)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욥 18:6)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욥 18:7)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궤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욥 18:8)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욥 18:9) 그의 발 뒤꿈치는 덧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빌닷은 욥이 악인인 까닭에 욥 자신이 만든 그물에 빠지고 함정에 걸려 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욥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욥 19:6)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 19:7)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 19: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욥 19:9)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욥 19:10)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욥 19: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
 (욥 19:12)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돋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욥은 누가 그물을 쳤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악인이므로 자기가 만든 함정에 들어 간 것이라고 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자신을 그물에 얽어 넣으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일체의 희망까지도 나무 뽑듯 송두리째 뽑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진원지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절망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비단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 인간들까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합세를 합니다.

(욥 19:13)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욥 19:14)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 19:15)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욥 19: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욥 19:17)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 19:18)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욥 19:19)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은 자신을 알고 있는 모두에게 총체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절규합니다.

먼저 형제 지인 친척과 친지들이 욥을 잊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형제들도 그를 싫어 했으며 버렸다고 했습니다.

주인인 욥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고 있는 나그네와 당연히 욥에게 순종해야 하는 여종들조차도 욥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신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욥은 지금 단지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되는 지경에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같은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욥 19:20)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욥은 친구들에게 간청합니다.

(욥 19: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 19: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몸을 보아라 내 몸이 이 꼴인데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아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나를 핍박하느냐? 제발 나를 구박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다오”

욥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철저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때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총체적인 절망 가운데 빠진 욥에게 구속자에 대한 찬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구속자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그로 인해 종살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거나 죽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해 토지나 돈으로 갚아 주고 무르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빛을 저서 그로 인해 종살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거나 죽을 수 밖에 없게 된 사람을 대신해 토지나 돈을 주고 무르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르켜 '고엘' 즉 '친족 구속자(kin Redeemer)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친족 구속자란 내가 빛으로 인해 종살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거나 죽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나를 대신해 내 몸 값을 치러 주고 나를 속량해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욥은 죽을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구속자 '고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욥은 자신을 더이상 고통과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고 구원해 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구원해 줄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보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욥 19: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 19:26)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한국어 번역으로 성이 차지 않아 영어 번역(NIV)도 봅니다.

²⁵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on the earth.

²⁶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yet in my flesh I will see God;

욥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에는 욥의 구속자시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우리의 부활을 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중에도 아브라함 이전 족장 시대에 살았던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놀랍습니다.

이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참으로 놀라운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이 계시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욥은 '내 가족이 벋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합니다.
'육체 밖에서'의 영어 번역은 'in my flesh' 'from my flesh' 'apart from flesh'로 '내 육체로' '내 육체로부터'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부활하여' '영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자신이 장차 부활하여 영으로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 19: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NIV

*²⁷I myself will see him with my own eyes—I, and not another.
How my heart yearns within me!*

욥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욥 자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살아계신 구세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내 간장이 녹아 내리는구나'라고 말합니다.

욥 자신이 얼마나 메시아를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은 본연의 믿음을 찾았습니다.

사방으로 포위당해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소망은 역시 하나님 한 분 뿐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근원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 하나님은 핍박자인 동시에 구속자이셨습니다.

욥은 영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좀 더 성숙한 믿음, 즉 고통의 근원과 종결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난 11 일 명성 교회가 임시 당회를 열어 경기도 하남에 소재한 김삼환 목사 장남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새노래 명성 교회와 합병을 결의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고로 김삼환 목사 장남 김하나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새노래 명성 교회는 명성 교회가 돈을 대주어 지은 교회입니다.

합병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성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19 일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공동 회의를 열어 교인들에게 교회 합병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시행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성 교회 당회에서의 이같은 합병 결의는 명성 교회가 속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가 2015 년 가결한 교회(목회) 세습(대물림) 금지 조항을 교묘히 피해 편법으로 교회를 세습하려는 것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15 년 당시 가결한 조항은 세습의 범위를 '사임이나 은퇴하는 담임 목사(시무 장로)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거나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로 규정했으며 교회간의 합병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항을 만든 취지는 무시한 채 미흡했던 세칙을 이용해 편법으로 세습을 시킬려고 하는 명성 교회와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짓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받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데 이어 접한 뉴스입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그렇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여러분과 함께 헨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 나오는 아리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I know that my redeemer lives)'를 들으며 설교를 마칩니다.